

## 칼빈의 과학관

안명준 (평택대), 조덕영 (Th.D. Cand. 평택대 신학전문대학원)

### 1. 서론

인류의 과학적 사고에 혁명이 일어난 것은 16-17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대를 살다간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1473-1543)로부터 뉴턴(Issac Newton, 1642-1727)에 이르는 동안 이룩된 고전적 근대 과학(classical-modern science)은 고대 및 중세 과학의 대부분을 무효화시켰다.<sup>1)</sup>

요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16세기의 초·중반을 살다간 위대한 개혁자이다. 칼빈은 근대 과학을 향해 꿈틀거리며 역동성을 발휘하

---

<sup>1)</sup> R. Hooykaas,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Grand Rapids: Eerdmans, 1972). 그는 서론에서 이렇게 진술한다.

기 시작한 자연과학의 바람을 결코 피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던 시대를 살았다. 비록 자연과학자는 아니었으나 당대 개신교의 지성의 상징적 인물 중 하나였던 칼빈은 과학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신앙적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별히 점성술이나 천문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결코 적지 않았다.<sup>2)</sup>

본 논문에서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살다간 위대한 신학자였던 존 칼빈의 사상에 나타난 과학관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시대적 상황과 칼빈

과학이 꿈틀대던 칼빈 시대는 천동설로 유명한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시대였다. 칼빈은 코페르니쿠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으며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 당시의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 중심설은 신학과 종교와 자연과학의 긴장과 충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당시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지구 중심설이 성서의 지지를 받는 듯 여겨지던 시대이다.

코페르니쿠스(1473-1543)가 지동설을 담은 새로운 천문학 개론서를 낸 것은 1514년이였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Brief Treatise(Commentariolus, 짧은 논문)*이라는 논문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그러나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1543)는 코페르니쿠스 사후(死後) 루터파 개신교 목사였던 오시안더(Andreas Osiander<sup>4)</sup>)에 의해 출간되었다. 당시 이것은 성서의 권위와 신

2) 칼빈의 『점성술에 대한 경고』(서울: 솔로몬, 1999)를 볼 것.

3) Alexandre Koyre. *The Astronomical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3), 85. 완전한 제목은 *De hypothesibus motuum a se coelestium a se constitutis commentariolus*였다. 이 글의 저작연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책을 언급하고 있는 1514년의 Matthew of Miechow라는 목록의 발견으로 이 글의 최초의 날짜를 알려주었다.

4) Andreas Osiander(1498-1552), German reformer, was born at Gunzenhausen, near

빙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칼빈은 과연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알고 있었을까? 그러나 아직까지 칼빈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자들이 칼빈이 반 코페르니쿠스자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앤드류 딕슨 화이트(Andrew Dickson White)는 「과학과 신학의 전쟁 역사, History of the Warfare of Science with Theology」(1896)에서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통상 「시편」 93 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 문제에 도전했고 어느 누가 감히 성령의 권위 위에 코페르니쿠스의 권위를 올려놓으려 할 것인가”<sup>5)</sup>라고 질문했다. 반 기독교인이었던 러셀(B. Russel)은 『서

---

Nuremberg, on the 19th of December 1498. His German name was Heiligmann, or, according to others, Hosemann. After studying at Leipzig, Altenburg and Ingolstadt, he was ordained priest in 1520 and appointed Hebrew tutor in the Augustinian convent at Nuremberg. Two years afterwards he was appointed preacher in the St Lorenz Kirche, and about the same time he publicly joined the Lutheran party, taking a prominent part in the discussion which ultimately led to the adoption of the Reformation by the city. He married in 1525. He was present at the Marburg conference in 1529, at the Augsburg diet in 1530 and at the signing of the Schmalkald articles in 1537, and took part in other public transactions of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that he had an exceptionally large number of personal enemies was due to his vehemence, coarseness and arrogance in controversy. The introduction of the Augsburg Interim in 1548 necessitated his departure from Nuremberg; he went first to Breslau, and afterwards settled at Königsberg as professor in its new university at the call of Duke Albert of Prussia. Here in 1550 he published two disputations, the one *De loge et evangelio* and the other *De justificatione*, which aroused a controversy still unclosed at his death on the 17th of October 1552. While he was fundamentally at one with Luther in opposing both Romanism and Calvinism, his mysticism led him to interpret justification by faith as not an imputation but an infusion of the essential righteousness or divine nature of Christ. His party was afterwards led by his son-in-law Johann Funck, but disappeared after the latter's execution for high treason in 1566. Osianders son Lukas (1534-1604), and grandsons Andreas (1562-1617) and Lukas (1571-1638), were well-known theologians.

자료제공 [http://www.1911encyclopedia.org/O/OS/OSIANDER\\_ANDREAS.htm](http://www.1911encyclopedia.org/O/OS/OSIANDER_ANDREAS.htm).

<sup>5)</sup> Andrew Dickson White, *A History of the Warfare of Science with Theology* (New York: Free Press, 1965), 123. “While Lutheranism was thus condemning the theory of the earth's movement, other branches of the Protestant Church did not remain behind. Calvin took the lead, in his *Commentary on Genesis*, by condemning all who asserted that the earth is not at the centre of the universe. He clinched the matter by the usual reference to the first verse of the ninety-third Psalm, and asked, “Who will venture to place the authority of Copernicus above that of the Holy Spirit?” Turretin, Calvin's famous successor, even after Kepler and Newton had virtually completed the theory of Copernicus and Galileo, put forth his compendium of theology, in which he proved, from a multitude of scriptural texts, that

양철학사』에서 화이트가 주장한 이 내용을 반복해서 칼빈을 공격하였다. 심지어 최근의 토마스 쿤(T. S. Kuhn)조차 이 구절로 칼빈을 공격한다.<sup>6)</sup> 그래서 학자들은 무심코 칼빈을 반코페르니쿠스 주의자였다고 인정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의 인물 중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꼼꼼히 살펴본 적은 없는 듯하다. 칼빈의 어느 책에도 위의 구절은 나오지 않는다. 칼빈의 「시편」 93편 1절에 대한 주석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지동설을 유지하고 천동설을 주장하는 해석학적 오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강조를 말한다.<sup>7)</sup> 그런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문헌은 없다. 로젠(E. Rosen)은 화이트와 반대로 칼빈의 모든 텍스트를 찾아보았으나 칼빈이 코페르니쿠스에 대해 들어본 일도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해 어떤 태도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up>8)</sup> 유명한 기독교 과학사의 대가인 호이카스(R. Hooykaas)도 칼빈은 한번도 코페르니쿠스를 언급한 적이 없으며 칼빈이 말했다는 ‘인용구’는 모두 가공의 산물임을 지적한다.<sup>9)</sup> 코페르니쿠스는 칼빈이 죽기 25년 전(1539) 마르틴 루터가<sup>10)</sup> 이미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비록 코페르니쿠

---

the heavens, sun, and moon move about the earth, which stands still in the centre.”

6) T. S. Kuhn, *The Copernican Revolution : Planetary Astronomy in the Development of Western Though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Ch. 6을 보라.

7) John Calvin, *Comm. on Psalms* 93:1 (Grand Rapids: Baker, 1979). “The Psalmist proves that God will not neglect or abandon the world, from the fact that he created it. A simple survey of the world should of itself suffice to attest a Divine Providence. The heavens revolve daily, and, immense as is their fabric, and inconceivable the rapidity of their revolutions, we experience no concussion -- no disturbance in the harmony of their motion. The sun, though varying its course every diurnal revolution, returns annually to the same point. The planets, in all their wanderings, maintain their respective positions. How could the earth hang suspended in the air were it not upheld by God's hand? By what means could it maintain itself unmoved, while the heavens above are in constant rapid motion, did not its Divine Maker fix and establish it? Accordingly the particle Pa, aph, denoting emphasis, is introduced -- Yea, he hath established it.”

8) E. Rosen, “Calvin's Attitude toward Copernicus”,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21 (1960): 431-441.

9) R. Hooykaas, “Thomas Digges' Puritanism,” *Archives Internationales d'Histoire des Sciences* 8 (1955), 151.

10) 루터의 코페르니쿠스에 태도는 참고로 Donald H. Kobe, “Luther and Science,”

스가 가톨릭의 인물이었고 칼빈보다 루터가 가톨릭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도 칼빈이 코페르니쿠스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왜 칼빈의 저서나 관련 문헌에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일까? 어쩌면 칼빈이 설혹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알고 있었다 해도 그리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그것을 공적으로 논평할 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후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그의 태양 중심설은 지지자들을 거의 얻지 못하였다. 겨우 한 대학교(스페인의 Salamanka 대학)에서 가르쳐졌으며 보댕(Jean Bodin, 1530-1596)이나 몽테뉴(1533-1592) 같은 16세기 후기의 학자들도 코페르니쿠스에 대해 침묵한다.

코페르니쿠스는 이후 반세기가 지나서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Tycho Brahe, 1546-1601)에 의해서 본격 부활된다.<sup>11)</sup> 신학자로서의 칼빈에게 있어서 비록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관심의 대상이었더라도 자신의 저작 가운데서는 간과되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칼빈의 저서에 나오지도 않는 이 코페르니쿠스를 비난했다는 낭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인용이 되었던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하여 존 샤프(John Sharp)는 멜랑히톤의 물리학 서론(*Intia Doctrinae Physicae*)에서 인용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sup>12)</sup>

### 3. 자연 과학에 대한 칼빈의 이해

칼빈에게 있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세상이었다. 칼빈은 과학을 무시

---

<http://www.leaderu.com/science/kobe.html>.

<sup>11)</sup> Richard S. Dunn, "The Age of Religious Wars: 1559-1689," in *The Norton History of Modern Europe*, ed., Felis Gilbert (Norton & Company: New York, 1970), 223-227.

<sup>12)</sup> John Sharp, *Calvinism and Science*, 장갑덕 역 (서울 : CUP, 1989), 3.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칼빈은 자연과학에 대해 열려있었으며 자연과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칼빈은 과학적 연구를 적극 권장하였으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물질세계와 인간의 몸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증거 한다. 칼빈은 천문학과 의학 연구를 모두 적극 추천한다. 자연을 탐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많은 증거와 지혜와 섭리를 알게 되는 일이었다. 과학이 하나님의 과학이 아닌 것이 아니었다.

다만 칼빈은 성경을 과학과 관심이 다른 책으로 보았다. 성경은 천문학이나 고도의 기술을 가르치려는 책이 아니었다.<sup>13)</sup> 성경은 전문 과학 서적처럼 대할 책이 아니었다. 칼빈은 분명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에 종교적 동기를 부여했다. 자연은 인간 타락이 후로 조금 이그러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책으로 본 것이다. 피조세계의 연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훌륭한 도구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었다.<sup>14)</sup> 1645년과 그 이듬해 과학에 헌신한 사람들의 부정기적 모임으로 출발한 영국 왕립협회(the Royal Society)<sup>15)</sup> 회원 대부분이 청교도적 칼빈 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sup>16)</sup>

그렇다면 칼빈은 자연 과학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까? 칼빈신학의 대가인 방델(F. Wendel)은 멜랑히톤이 자연 과학에 상당한 지평을 넓힌 반면 칼빈은 정치사, 교회사, 문학과 언어학, 해석학, 철학 등 인문 분야의 방대한 학식에 비해 물리학 또는 자연과학 혹은 수학 등에는 많은 관심을 보인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한다.<sup>17)</sup> 유명한 인문주의자 요하네

13) *Comm. on Genesis* 1:6. “He who would learn astronomy, and other recondite arts, let him go elsewhere.”

14) *Comm. on Genesis*, 2:3.

15) Stephen F. Mason, *A History of the Science* (N. Y. : Collier Books, 1962), 178.

16) 미 사회학자 머튼(Robert K. Merton)의 연구(*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1938)에 따르면 1645년 영국의 “보이지 않는 대학” 모임의 설립자 열명 가운데 오직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칼빈주의 청교도들이었으며 왕립협회 초기 회원의 62%는 청교도들이었음을 증거한다.

17) F. Wendel,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41-42. F. Wendel, *Calvin: Orige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Durham: The Labyrinth Press, 1963), 36. “He seems never to have been seriously interested

스 로이힐린(J. Reuchlin, 1455-1522)<sup>18)</sup>의 증손자로 어릴 때부터 신동의 소리를 듣고 자라며 에라스무스에게까지 찬사를 들었던 박식의 멜랑히톤에 비해 칼빈이 자연과학 부문에 멜랑히톤만 관심이 덜했던 것은 저서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 과학에 대해 칼빈의 무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칼빈의 사상에는 분명 일관되게 흐르는 물줄기가 있다. 그것은 과학의 분야에 있어서도 분명하였다. 즉 칼빈에게 있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이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과학은 하나님의 피조의 질서이다. 하지만 칼빈에게 있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것이 칼빈이 이교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이유였다. 그러나 이교도로부터 유래한 것을 모두 거부하지는 않았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일반 은총 교리는 헬라의 문학적이고 학문적인 유산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막았다. 최초의 타락이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붕괴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sup>19)</sup> 하지만 인문주의자로서의 칼빈은 타락이 모든 것을 완전한 부패로 이끌었다고 보지는 않았다.

진리의 빛은 분명 이교도에게도 비치고 있었다. 만약 성령을 신앙의

---

in the physical or natural sciences nor in mathematic-very unlike Melanchthon, who in that respect widened his horizon considerably.”

<sup>18)</sup> 그의 어학적 소양은 그리스·라틴어에서 헤브라이어에 이르고, 독일의 인문학을 헤브라이어 세계까지 넓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유학, 인문학의 새 정신을 터득하고 하이델베르크·슈투트가르트에서 교편을 잡았다. 당시 유대인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유대 관련 서적 말살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에 반대하여 유대인의 뇌물을 받았다는 비난을 받고 쾰른대학 신학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싸움이 독일인 학자를 격분시켜 《무명인의 편지》라는 풍자서(諷刺書)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로마의 지지를 얻어 승리하였다. 자료출처는 <http://mtcha.com.ne.kr/world-man/german/man5-1-roihilin.htm>.

<sup>19)</sup> 이것을 과학의 용어로는 열역학 제 2의 법칙 또는 엔트로피(entropy)의 법칙이라고 한다. 모든 에너지의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곧 에너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과거에는 엔트로피가 작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즉 인류 범죄의 결과에 대한 유추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유일한 원천으로 본다면 우리는 성령을 훼방하지 않고 성령이 어디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든지 그 진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sup>20)</sup>

이런 관점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우주론을 성경에 투사시켜 읽던 당시의 일반적 관습을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칼빈은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과 창세기의 세계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동시대 사람들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었다.

칼빈은 당시 천문학 체계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모세는 천문학적 내용을 기술하는 데 있어 통속적으로 글을 썼고 상식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반면 천문학자들은 전문가들로, 인간의 두뇌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언어로 기술하였다고 보았다.

칼빈의 해석 방법은 성경의 종교 메시지가 누구에게든지 이해할 수 있게 묘사되었다는 종교 개혁 이론에 기초한다. 성령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통된 학교를 개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주제를 선정하였을 것이다. 즉 모세는 교육받은 자의 교사만은 아니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교사였다. 그러므로 모세는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 평범한 언어를 채택했다. 그렇다면 성경은 보통사람들을 위한 책이므로 천문학 및 다른 어려운 학문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sup>21)</sup>

시편 주석에서도 칼빈은 성경의 저자들이 과학적 사건에 대해 감관이 느끼는 대로 묘사했지 과학적 용어로 묘사하려 하지 않았음을 역설한다. “성령께서는 천문학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다시 말해 가장

---

2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F. L.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7), 2.2. 15. 이후로는 Inst로 표기한다. “Therefore, in reading profane authors, the admirable light of truth displayed in them should remind us, that the human mind, however much fallen and perverted from its original integrity, is still adorned and invested with admirable gifts from its Creator. If we reflect that the Spirit of God is the only fountain of truth, we will be careful, as we would avoid offering insult to him, not to reject or condemn truth wherever it appears.”

21) *Comm. on Genesis* 1.15.



단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교훈을 내리기 위해 성경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아무도 그 말씀이 모호하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셨다.”<sup>22)</sup>

#### 4. 과학의 문제에 대한 칼빈의 해석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 1) 칼빈의 적응 방법

그렇다면 과학의 영역 해석에 대한 칼빈의 방법론은 무엇이였을까? 맥 그라스는 과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칼빈의 공헌이 있다고 하였다.<sup>23)</sup>

- 1) 칼빈은 자연에 대한 과학연구에 대해 긍정적 활력을 불어넣은 인물이다.
- 2) 칼빈은 과학 연구의 장애물을 제거한 인물이다.
- 3) 칼빈은 성경을 적응(accommodation)의 방법을 가지고 이해하려 한 사람이다.<sup>24)</sup>

그렇다면 이 적응(Accommodation)의 방법이란 무엇인가?<sup>25)</sup> 하나님은

<sup>22)</sup> *Comm. on Psalms* 16:7, 184-185. “The Holy Spirit had no intention to teach astronomy; and, in proposing instruction meant to be common to the simplest and most uneducated persons, he made use by Moses and the other Prophets of popular language, that none might shelter himself under the pretext of obscurity, as we will see men sometimes very readily pretended an incapacity to understand, when anything deep or recondite is submitted to their notice. Accordingly, as Saturn though bigger than the moon is not so to the eye owing to his greater distance, the Holy Spirit would rather speak childishly than unintelligibly to the humble and unlearned.”

<sup>23)</sup> A. E. McGrath, *Science & Religion* (Oxford: Blackwell Pub., 1999), 10.

<sup>24)</sup> A. McGrath는 이승구 교수와의 대답에서도 ‘the doctrine of divine accommodation’이 성경을 해석하는 틀로나 기독교 변증학에 대한 근원적 충동체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이승구, 『현대 영국 신학자들과의 대담』 (서울: 엠마오, 1992), 51-54를 볼 것.

<sup>25)</sup> 적응 원리의 방법에 대해서는 Klaus Scholder의 *Ursprunge und Probleme der Biblekritik im 17. Jahrhundert* (Munich: Kaiser, 1966), 56-78. Amos Funkenstein, “The Dialectical Preparation for Scientific Revolutions” in *Corpernician Achievement*, ed. Westman,

죄 많은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할 때 겪는 것과 동일한 문제에 부딪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추어 내려오사 우리의 연약한 점에 자신을 맞추신다. 이것은 유아원 선생님이 유아 언어로 말하는 것이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면서 자녀들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나 비슷하다. 제한된 지성의 어린 아이에게 그들의 이해와 경험을 능가하는 말과 개념을 사용할 경우 의사소통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이 수준에 맞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 접근 방법은 칼빈에 의해 적응이라는 용어로 언급된다.

적응(Accommodation)은 라틴어의 수사학자나 법학자들이 청중들의 상황, 구조, 성격, 지적수준, 감정 상태 등에 적응 시키며, 조절하며 적합하게 진행하는 사용법이다. 이 적응의 원리를 이용한 교부들은 오리겐(Origen), 크리소스톰(Chrysostom), 어거스틴(Augustine) 등이 있다.

칼빈은 신학 언어가 어떤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칼빈은 ‘신인동형설(anthropomorphism)’의 언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원리는 이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신인동형적으로 손과 발이 달린 한 인간으로 언급하거나 희생 제물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이 적응의 원리에 근거할 때 이해가 가능해진다. 적응의 방법은 일상의 언어와 전문가 사이의 담론의 긴장을 해소하는 도구가 된다.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화상을 그리신다. 즉 인간의 지성과 마음의 능력에 적응하신다. 좋은 웅변가는 청중의 한계를 잘 알고 거기에 적응한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오시기 위해 몸을 굽히셨다. 하나님은 때로 입, 눈, 손과 발을 소유하신 분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거스틴의 장황

---

195-197; Ford Lewis Battles. "God was Accom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Interpretation* 31 (1977): 19-38; Dink W. Jellema, "God's baby-talk Calvin and The 'Errors' in the Bible." *Reformed Journal* 30/4; Edward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Clinton M. Ashley, "John Calvin's Utilization of the Principle of Accommodation and its Continuing Significance for an Understanding of Biblical Language"; Glenn S. Sunshine, "Accommodation in Calvin and Socinus: A Study of Contrasts" 등을 참조할 것.

한 설명을 반대했다.<sup>26)</sup> 칼빈은 신인동형설이라는 언어 자체는 달가워하지 않았으나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2) 「창세기」 1장 주석에 나타난 해석 방법으로서의 칼빈의 적응  
(accommodation)

창조에 대해 칼빈은 바실리우스(Basilus)나 암브로스(Ambrose)의 이해를 받아들인다.<sup>27)</sup> 이들 견해의 특징은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이다. 칼빈에게 있어 물체가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의 우화에 불과했다.<sup>28)</sup>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요<sup>29)</sup> 완벽한 하나님이었다.<sup>30)</sup>

그러나 칼빈은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과학의 문제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 칼빈은 「창세기」에서 천문학이나 고도의 기술을 배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sup>31)</sup> 하며, 마치 성경을 과학 서적처럼 다루는 일에 대해 경계한다. 왜냐하면 모세는 미개인까지도 알아볼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2)</sup>. 하늘의 해와 달에 대해 칼빈은 「창세기」가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밝게 우리들에게 비추는지를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sup>33)</sup> 신비한 세계를 더욱 탐구하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모세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다.<sup>34)</sup> “만일 모세가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

---

26) 안명준, 『칼빈의 성경 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33.

27) Inst., 1.14.20. n 29.

28) Comm. on Genesis. 1:1.

29) Comm. on Genesis. 1:14.

30) Comm. on Genesis. 1:31.

31) Comm. on Genesis, 1:6. “He who would learn astronomy, and other recondite arts, let him go elsewhere.”

32) Comm. on Genesis, 1:14.

33) Comm. on Genesis, 1:15.

34) Comm. on Genesis, 1:16.

세히 말했다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그에게 호소했을 것이다”.<sup>35)</sup>

그렇다면 성서의 창조 이야기는 사람들의 수준과 능력에 적응한다. 이것을 문자적 묘사로 보면 안 된다. 창세기의 기자는 학식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원시적인 사람들의 교사로 임명되었고, 그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교육 수단으로 내려오지 않고는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렇게 볼 때에 칼빈에게 있어 창조의 6일은 24시간의 여섯 단위가 아니었다. 칼빈은 순간 창조 개념을 반대하였으며 6천년 전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sup>36)</sup> 확장된 시간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의 사고방식에 적응한 것이었다. 칼빈은 그에 따라 궁창위의 물도 구름에 적용된 것으로 보았다. 즉 칼빈에게 있어 이 모든 것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그것은 적용된 것이다.

칼빈의 시대 루터주의자들은 이미 지동설을 책망하고 있었다. 칼빈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창세기 주석에서 비난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37)</sup>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것은 화이트의 일방적 주장일 뿐 창세기 주석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검토해볼 여지를 남기고 있다.

칼빈도 당시의 과학적 지식에 전문적이지 못하여 성경의 본문들을 잘 못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칼빈은 당시 천문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달이 불명료한 물체라는 것을 인정하나 캄캄한 물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칼빈은 달이 불타고 있는 물체일 것이라 본다. 즉 달은 발광체라고 말한다.<sup>38)</sup> 성경이 달을 광명(창 1:15-16)이라고 부르니 성경에 적용하면 달이 광명이라는 것은 옳다. 그러나 천문학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생

---

<sup>35)</sup> Ibid.

<sup>36)</sup> Andrew Dickson White, *A History of The Warfare of Science with The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58.

<sup>37)</sup> Ibid., 123.

<sup>38)</sup> *Comm. on Genesis*. 1:15.

긴다. 물론 지구도 광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달이나 지구가 그 중심에 뜨거운 마그마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또한 그 실체에 대한 해답이 간단하지는 않다.

과학자들의 견해도 결국 시대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과학자들도 당연히 오류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 과학자들을 모두 오류투성이의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칼빈도 당연히 제한적 지식 아래 잘못 말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적용 이론 아래에서 칼빈은 자신이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대해 자유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런 것이 과학이 문제에 대한 칼빈의 성경 주석이 미숙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 칼빈은 성경 원문을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이었다. 칼빈은 탁월한 성경 원문 연구가였던 것이다.<sup>39)</sup> 이런 자세는 당시 유럽의 인문주의의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칼빈이 성경 해석에 있어 과학의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대충 넘어가는 수준의 능력이나 성품을 지닌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칼빈은 성령이 “비천하고 교육받지 못한 무리들로 하여금 배우는 길을 막아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와 함께 말을 더듬거리는 쪽을 선택했다”고 주석한다.<sup>40)</sup> 그런 면에서 칼빈이 보기에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의 지동설에 대한 비판에 대항해서 수학적 물리적으로 난해한 점들까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 모세나 선지자들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임이 분명하였다. 모세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자신을 적응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칼빈은 진화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생물의 ‘종류(min)’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1절에 처음 나타난다.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종류대로의 창조의 문제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종류는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40회)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

---

<sup>39)</sup> T. H. L. Parker: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Edinburgh: T. & T. Clark, 1971), 147.

<sup>40)</sup> *Comm. on the Psalms*, 136:7.

(10회)이다. 그럼에도 칼빈은 이 언어를 아주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서술한다. 진화론은 19세기 중반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1859)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자연과학의 주요 이슈가 된다. 칼빈의 시대는 아직 진화론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시대였다. 칼빈은 종류대로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석을 기록하는데 있어 당시의 수준에서 단순한 언어로 묘사하려는 입장을 지속한 듯하다.

칼빈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불충분성을 잘 알고 있었다. 자연 계시란 칼빈에게 있어 약간의 섬광과 같은 것으로 비쳐진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이 그러한 광명 속에서 명백히 계시되어지지만 우리의 눈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내적 계시에 의해 조명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설명한다(롬 1:19). 칼빈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sup>41)</sup>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계시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41) Inst 1.1.14. 칼빈의 자연계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독교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공백서』를 근거로 하여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 수 있는 지각과 종교의 씨를 심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칼빈의 자연계시론이다. “*Dei notitiam hominum mentibus naturaliter esse inditam*. CO 2,36, The knowledge of God has been naturally implanted in the mind of men, Inst. 1,3,1”. 계속하여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인간의 마음에(정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자연계시(일반계시)을 유전자의 코드처럼 심었다고 주장한다. “*Quemdam inesse humanae menti, et quidem naturali instinctu, divinitatis sensum*. There is within the human mind, and indeed by natural instinct, an awareness of divinity”. 따라서 인간은 이미 자연적인 본능으로 이 신지식(자연계시) 갖고 있다. “*sui numinis intelligentiam universis Deus ipse indidit*(God himself has implanted in all men a certain understanding of his divine majesty)”. 그러므로 칼빈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위엄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셨다고 한다. 인간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신들의 창조자임을 알게 된다. “*unum omnes intelligunt Deum esse, et suum esse opificem*. Men one and all perceive that there is a God and that he is their Maker”. 칼빈은 여기에서 더나가 세계종교의 근원에 대하여 논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종교의 씨**(*religionis semen*)를 주었기 때문에 세계가 존재한 날부터 종교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종교성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고 심지어 그것을 부인한다고 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in eo tacita quaedam confessio est, inscriptum omnium cordibus divinitatis sensum*. There lies in this a tacit confession of a sense of deity inscribed in the hearts of all”.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무언의 고백이 이 안에 있다. 그러나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계시(자연계시)는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기 때문에 특별계시인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Inst 1, 4, 1, 「시편」 14장 1절, 53장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자연의 빛을 꺼 버렸다.(*suffocata naturae luce, by extinguishing the light of nature*)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칼빈의 전통에서 있는 WCF 1장 1절은 자연의 빛(the light of nature)은 비록 하나님의 선과 지혜, 권능을 나타냄을 말하지만 성경의 필요성을 말한다.

주고 있는 것이다<sup>42)</sup>

## 5. 결론

칼빈은 결코 과학을 무시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열린 신학자였으며 과학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신학자였다. 따라서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과학자들에 대하여서도 비난을 하는 신학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모든 학문을 하나님의 일반은총으로 보았다. 물론 그는 과학적 이론을 바르게 그의 해석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전반적인 과학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과학은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낼 수 있으며 특별계시로 재해석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도구였다.

과학의 문제에 대한 칼빈의 해석방법과 관련하여 그는 적응이란 방법을 사용하였다. 맥그라스는 ‘적응’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논제는 아니었으나 성서 해석과 신학 구조와 관련되어 지속적인 이슈였다고 주장한다.<sup>43)</sup> 칼빈은 과학혁명이 태동하기 시작한 시대를 살면서 적응이라는 해석 방법을 통해 성경 해석이 모든 역사와 자연과학을 향한 적응된 해석이 되어야 함을 자신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하나님은 칼빈 시대나 모세 시대만의 하나님은 아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은 오늘날 과학의 발달을 분명 예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

“Although the light of nature do so far manifest the goodness, wisdom and power of God, Latin Confessio Fidei, *Quanquam naturae lumen*…… manifestant. As to leave men inexcusable; yet they are not sufficient to give that knowledge of God, and of his will, which is necessary unto salvation. . . which maketh the Holy Scripture to be most necessary”.

<sup>42)</sup> Inst. 1.6.4.

<sup>43)</sup> A. E. McGrath, *The Christian Theology Reader* (Oxford : Blackwell Publisher, 2001), 65.

주어진 책이기는 하나 우리에게는 현재의 책이요 미래의 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학 만능, 과학주의가 만연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적응은 어떤 것일까? 또 미래에의 적응은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과학과 관련된 성서 해석에 있어 칼빈의 적응 이론은 과학 기술 시대를 사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